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오단이* · 김정선** (숭실대학교) · 하태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도전

II. 기독교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기업의 이해

1.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신학적 근거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III. 고엘공동체 사례

1.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2. 연구대상

IV. 연구결과

1. 설립과정: 역사하심
2. 고엘공동체의 딜레마

V. 나아가며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7.03>

* 주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 ABSTRACT •

Christian Social Enterprise Dilemmas: Focused on Social Enterpris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Oh, Danny(Soongsil University)

Kim, Jungsun(Soongsil University)

Ha, Tai sun(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Christian social enterprises that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website, documentation, and in-depth interviews aimed at go'el communities in Cambodia. Go'el community has established an import duty for the poor in Cambodia. Business start-up was impossible without God's History. Social enterprises are founded motives to face the economic challenges of the seriousness of Cambodia came to the mission that started in thinking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In other word, Social enterpris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experience showed that the various dilemmas in the process of running a social enterpri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ntribution with this was a weak Research provides direction to move the Korea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Christian, Churc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도전

한국사회에서 기독교¹⁾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는 종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한국사회에 산재해 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교회는 종교적 역할을 넘어서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역할도 함께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의 2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는 종교의 순위도 가톨릭 32.9%, 불교 22.1%에 이어 기독교는 18.9%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²⁾ 이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교세확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는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기존 재단·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이나 기독교 기반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시민사회활동(NGO)을 하는 것을 탈피하여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 대두된 ‘사회적경제’라는 바람에 편승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

1) 김성호,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31집, 2015, 121~149. 기독교(Christianity)는 크게 천주교(Roman Catholic), 개신교(Protestantism), 정교(Orthodox Church)를 포함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개신교를 지칭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표현하고자 한다.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3)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41집, 2012, 61~84.

럽게 기독교계와 가톨릭계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과 ‘1교회 1기업 육성’ 운동을 위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결성이다.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창업된 메자닌에코원(주)이나 기독교 NGO인 기아대책에서 설립한 행복한나눔 그리고 굿월스토어 등이 있다. 가톨릭계에서는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이어 가톨릭사회적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⁴⁾ 대표적인 가톨릭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쿠키를 만드는 위캔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기관이나 국제NGO 중에서 선교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곳이 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기업 굿쉐어링을 설립하였다. 이 사회적기업은 G-saver⁵⁾란 축열기를 생산 및 유통하여 몽골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성 추구하고 지속가능성 간의 상충문제를 딜레마로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용어의 결합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기업을 형용모순(모순형

4)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여의도순복음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참여하는 초교파적 단체이며 2011년 설립되었다.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소속으로 2012년 3월 설립되었다. 2013년 4월에 가톨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2014년 5월 가톨릭사회적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한겨레, 2014.09.30.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57513.html.

5) G-saver는 열효율이 높고 매연은 적기 때문에 환경에도 기여를 한다.

용) 혹은 모순어법(Oxymoron)⁶⁾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도 일컫는다.⁷⁾

이에 본 연구는 디아코니아(diakonia)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개교회주의 사회복지실천을 넘어서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 사례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확장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고엘공동체 사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설립되고 그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딜레마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기업의 이해

1.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신학적 근거

1) 디아코니아와 사회적기업의 성서적 이해

기독교회 기능은 케리그마(kerygma: 복음선포),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 그리고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로 말한다. 이 중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는 내적 사역으로 해석된다면 디아코니아는 외적 사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본질적 사명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⁸⁾

6) 그리스어 어원은 oxus=sharp, moros=foolish로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모순 형용)을 하지만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며 미묘한 정서적 반응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모순어법에서 제시되는 두 가지 어휘는 모순되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결합되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017년 2월 17일 검색).

7) Dees, J. G., The Social Enterprise Spectrum: Philanthropy to Commerce.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1-7. 1996.

8) 정희성, 교회의 사회적 기업 창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회적기업의 신학적 근거는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사회참여를 의미한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을 살펴보면, 디아코니아는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 ‘디아(dia)’와 ‘먼지’라는 의미의 ‘코니아(konia)’의 합성어로 ‘먼지 가운데로 지나가는데’이라는 의미를 통해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가진다.⁹⁾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활동의 핵심개념인 ‘섬김’과 ‘봉사’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라 일컫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중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근간이 된다.¹⁰⁾ 특히 루터는 중세교회의 문제점인 수도사들의 구걸을 금지하고 빈민법을 공포하여 빈자들에게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세시대에 예배와 예배당에 쓰였던 재물은 교회가 아닌 빈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봉사와 자선은 ‘예배 후 예배’라고 선포하였다.¹¹⁾

앞서 논의한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기독교의 사회참여의 근간으로 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정희성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타난 사상을 통해 기독교 사회적기업 참여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설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멀게는 자본주의 태동기에 도시로 유입된 도시빈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며, 가깝게는 인구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업 및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로 복지혼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다. 이는 출애굽기 22-23장의 약자에 대한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통한다. 또한 레위기 19장 9-10절¹²⁾과 레위기 23장 22절¹³⁾에서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문, 2014년, 35.

9) 정희성, 앞의 글, 36.

10) 윤종권,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서적 근거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민대학교, 『한민대학 연구논문집』, 17, 2009, 98-108.

11) 정희성, 앞의 글, 36-37.

12)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섬김의 명령을 선포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회봉사 그리고 사회참여가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한다.¹⁴⁾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되며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사회적 일자리, 즉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통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신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2) 선교관점에서 사회적기업 논의

선교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에서 배제된 약자들을 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회적 선교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되도록 하는 일과 같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실패,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제3섹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유사하다.

중세 기독교는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형태로 사회참여를 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독일개신교협의회 사회봉사국 산하의 디아코니아 기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경제윤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재물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청지기정신에서도 즉, 디아코니아의 책임과 실천적인

이삭도 굶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굶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3)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굶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4) 정희성, 앞의 글, 38-41.

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취지와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¹⁵⁾

미국의 굿윌(GoodWill)은 이러한 청교도 윤리와 청지기 사상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굿윌은 감리교 목사 에드거 헬름즈(Edgar J. Helms)가 실업자, 부랑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행복한나눔’, ‘계약구재활용센터’ ‘굿윌스토어’와 같은 한국의 기독교 사회적기업들은 ‘자선이 아닌 기회’라는 의미로 기증품이나 쓰리프티스토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¹⁶⁾

한편, 기독교 사회적기업을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라는 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문제해결을 등한시 한 결과로 인해 교회성장률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선교목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봉사로서 빈곤층의 자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업관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영리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한국 영리기업이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인하지만 그 외에도 교회 내에서 금전적 논의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영리목적이 주가 아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5) 정희성, 앞의 글, 44.

16) 정희성, 앞의 글, 45.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확장가능성을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환대'의 정신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환대는 주로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낯선 사람(이방인, 나그네)을 환대하라고 전한다. 구약성서에서 환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나타나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명령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선 사람과 나그네를 보호하고 살피라는 명령이다. 이는 단순히 보호를 제공하라는 의미를 넘어 그들(낯선 사람, 이방인)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환대가 포함되어 있다. 성서에 나타난 환대는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것을 넘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였다.¹⁷⁾ 또한 진정한 환대는 계층, 인종 등을 넘어서는 공동체성이 기반되어야 한다.¹⁸⁾

주지하다시피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체계로서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 내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¹⁹⁾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개발협력은 보편적 인간애로서의

17)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36집, 2016, 60~62.

18) Pohl, C.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33.

19)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하지만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도 존재한다.

환대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선(先)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는 다르게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적 의미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가리키는 조직적 의미로 사용된다.²⁰⁾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사회운동성(social mobility)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경제영역이나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녹아있는 협력, 연대, 배려 등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생활영역에서 받아들여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같은 삶의 방식 혹은 태도로 귀결된다.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사회적경제’다운 삶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방식은 조금 불편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언정 만족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회운동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지향적인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의롭고 평등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사회운동이다. 개인 혹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공동체윤리를 기반으로 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생활공동체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

20) 오단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41호, 2013, 285~311.

며, 더 나아가 대안적 지역경제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²¹⁾

1)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 사회적기업

국제개발협력영역의 주체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이 있다. 민간영역의 주체는 기업, 개발-NGO이 있지만 그동안 활동을 이끈 주체가 개발-NGO였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개발-NGO가 쌓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잃어버린 10년’²²⁾이라 불리는 경험은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 활동하는 NGO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의구심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다양하나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해결과 취약 계층의 고용 및 지원과 관련지어 이해되는 반면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상업적 벤처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²³⁾ 이렇듯 사회적기업의 스펙트럼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에서부터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하는 영리기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21) 손원영, <타자성의 이해와 교회 교육의 갱신>,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 교육 정보』 7권, 2003, 204~207.

김성호, 앞의 글, 2016: 70.

22) 1980년대에는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축소가 이루어졌고, 이는 개도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공개혁을 요구하였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국가불유예 선언이 계기가 되어 민간부문 확장, 무역자유화, 정부지출 감소를 목표로 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 보건과 같은 핵심적 공공 서비스 제공의 축소를 야기하였고(www.odakorea.go.kr) 선진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 등으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990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는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였다(www.koica.go.kr).

23) 정선희,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고용노동부, 2007년

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엄격한 잣대로 보면 인증사회적기업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까지도 사회적기업으로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다양하게 이해되어지며 영리에서 비영리까지 스펙트럼이 넓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사회적기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임의단체)를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나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는 해외사업, 특히 국제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부터 참가부문에 글로벌 영역을 명시하였다. 2014년에는 글로벌·성장부문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과 같은 시장 확장 및 발전가능성이었던 대상을 2015년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적기업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자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다.²⁴⁾

24)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 <http://www.2015svc.com/>

2) 한국 기독교 사회적기업

기독교에서 이웃사랑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도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노력과 행위이다.²⁵⁾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 NGO는 저소득층,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인 사회적기업은 열매나눔재단과 기아대책에 의해 설립된 ‘메자닌 아이팩’, ‘메자닌 에코원’과 ‘행복한나눔’과 같은 사회적기업이다.²⁶⁾

메자닌 아이팩은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높은뜻송의교회가 설립한 열매나눔재단이 2008년에 설립하였다. 주요생산품은 종이(박스)와 샘플북이며 원조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이웃사랑’개념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향하고 있다. 메자닌 에코원도 북한 이탈주민과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삶, 공생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²⁷⁾

‘행복한 나눔’은 기아대책 내의 한 부서에서 시작해서 독립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2008년 받았으며, 나눔-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사업은 크게 재활용과 공정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재활용부문은 아름다운 가

25)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기독교 사회복지〉,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6호, 2003, 171-191.

26) 이용현, 〈세상을 섬기는 이색 기독교 사회적 기업〉, 고신언론사, 『생명나무』391호, 2014, 46-49.

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개요집1094』(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57-67. 이용현, 앞의 글, 47.

계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나눔과 순환을 목적으로 기부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그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다. 공정무역은 ‘행복한 장바구니’라는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의 생산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수입해와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다리돌 콩된장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한 ‘따뜻한 향기’ 커피세트와 초코릿이 있다.²⁸⁾

III. 고엘공동체 사례

1.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기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분야에 대한 기초자료 생산에 유용한 질적연구²⁹⁾를 택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는 연구대상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한국에 잠시 귀국한 시기였던 2015년 1월 21일 실시하였다. 면접질문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하였으며 면접시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는 고엘공동체 홈페이지, 문서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해 고엘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원(multiple source of information)이 연구의 총체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³⁰⁾ 또한 인터뷰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례에 대한

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앞의 책, 303.

29) 김영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질적 연구방법의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13, 2002, 73-109.

정보를 축적하였으며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내용을 보충하였다.

인터뷰 과정은 녹취를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윤리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녹음을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언제든 인터뷰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다는 점과 민감한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녹음을 중지한 상태에서 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는 전사 작업을 거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연구에 있어 적정사례 수에 대한 연구자간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인(Yin)의 경우, 하나의 사례가 중요할 경우 단일사례연구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일사례연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은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는 경우, 사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하거나 매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 과거에는 조사가 불가능 했던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획득이 가능한 경우, 종단적인 사례인 경우이다.³¹⁾

본 연구의 사례인 고엘공동체(goel community)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대다수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한국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목회자가 설립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기독교 사회적기업은 국제개발-NGO와 달리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즉,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 사례는 찾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엘공동체라는 단일사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딜레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30)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2003). 144-175.

31) Yin. 앞의 책, 77-81.

2. 연구대상

고엘공동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0Km 떨어진 따께오지역(Takeo province)³²⁾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6년 기독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community development) 목적으로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고엘은 히브리어 가알(gaal: gal'al)에서 왔으며, '구속하다', '친척으로서 행동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가알'(gaal)의 분사로 '구속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구약에서 고엘은 '기업 무를 자'(룻3:9), '구속자'(사60:16), '구속주'(잠23:11), '대신 보상 하는 자'(레25:49)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신약에서는 '잃어버린 권리를 대신하여 찾아 주는 자', '구속자'(롬3:24, 엡1:7, 14, 골1:14, 히9:15)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구속의 의미를 말한다.³³⁾

고엘공동체 홈페이지³⁴⁾에 따르면 고엘공동체는 레위기 25: 47³⁵⁾을 통해 낫은 사람과 나그네를 받아들이라는 의무를 주신 것과 레위기 25: 23³⁶⁾, 룻기 4: 4³⁷⁾을 통해 가족 중에 누군가 가난해지면, 형제들이 의무를

32) 따께오는 캄보디아 전체 쌀 생산량 1위인 지역이다. 논의 60-70%가 천수답이라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논농사기간인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은 일거리가 없다고 한다. 그나마 벼를 짜는 가정은 그 시기에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다고 한다.

33) <http://www.newsnbib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

34) <http://www.goelcommunity.org/about-us.html>

35)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36)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37)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지는 것과 같이 고엘공동체는 마땅히 캄보디아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설립목적을 밝혔다.

IV. 연구결과

1. 설립과정: 역사하심

고엘공동체의 설립과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표현된다. 2006년 고엘공동체 시작은 일반 사회적기업의 창업과정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가가 자본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출자금 혹은 대출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고엘공동체는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성경말씀에서와 같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제가 주머니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계좌에 26불인가, 24불인가 있었어요. 그 때 2006년도에 고엘공동체를 처음 시작했고, 그러니까 뭐 맨 날 기도가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거리가 없었죠. …(중략)… 그런데 뉴욕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서 우리 소식을 듣고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중략)… 2009년까지 3년은 거의 쌀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며칠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 부대들이 보내주는 재정과 또 먹거리를 가지고 한 3년은 살았어요.”³⁸⁾

또한 욱기 23장 13-14장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38) 이때 있었던 10여명이 1세대라고 한다. 그들은 정말 배고픔을 알고 고엘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안다고 연구참여자는 진술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잘 견뎌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걱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같이 하나님이 고엘공동체를 통해 행하시고 그가 걱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경제논리로 논할 수 없는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고엘공동체)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우리가 모르는 계좌로 저의 계좌로 매달 20만원씩 어느 분이 후원을 했는데 그건 몰랐어요. 잡지는 계좌로 후원을... 그 계좌로 보내는 것 (고엘공동체는) 모르고 차곡차곡 2년인가 3년 쌓였더라고요 ... (중략)... 그렇게 재정 없이, 가난함으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대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위 진술문과 같이 휴면계좌로 후원을 통해 자본금이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필요에 충분하게 태양과 비, 지구 및 물 자원을 적절히 준비하신다는³⁹⁾ 말씀에서와 같이 고엘공동체를 위해 적절히 준비해주신 역사하심이다.

1) 시작동기와 사업아이템

연구참여자는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왔으나 경제문제가 심각함을 직접 접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선교지의 특성상(최빈국)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이는 “이 세대의 부자들은 선한 일에 관대(generous)하여 참돈 생명을 취하라”라는 성경말씀(디모데전서 6: 17-18)에서와 같이 빈자구제에 대한 관심이 고엘공동체를 시작한 동기로 판단된다. 성경에서의 빈자에 관한 해석 즉,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39)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409.

와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아래 진술문을 통해 후자를 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왔으나 전자에 대한 해결이 더 시급한 것을 알고 고엘공동체라는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선교사로서는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제3세계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육체적 필요들, 그러한 필요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한편, 따깨오 지역이 전통적인 베틀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직조산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는 몇 가정이 이윤을 독식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였다고 한다. 이를 발견하고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엘공동체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인도를 제외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베틀, 전통베틀산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유일했어요. ...(중략)... 전통 방식이 약 1만 2천 5백대의 수공직조베틀이 여전히 그때가지도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중략)...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서 뭐가 무슨 컴퓨터를 가서, 농민들하고 컴퓨터를 가서 뭐, 배워줄 일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분들이 구조상의 모순 안에서 이 일들을 지속하지만, 좀 더 나은 cash flow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구상하게 됐고...”

“구조상 돈이 그쪽으로 가요. 자본이 그 마을 안에서도, 이제 그 분들이 그걸 가져다가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이나 프놈펜으로 올라가서 시장의 거래처로 천들을 놔두고 오면 그 시장 상인(shop owner)이 그 천들을 소개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가 되면 그 돈이 다시 프로세스를 아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배틀을 짠 가정에 오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지난다. 이러한 구조가 지역 민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엘공동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 예컨대 문화유산 보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는데(최조순, 2011: 72), 이는 고엘공동체의 사례에서 보여 진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엘공동체의 경우,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 천연 염색⁴⁰⁾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전수되지 않아서 그 과정을 찾는데 고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동안 따깨오 지역의 전통 천연염색방법을 복귀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 보존하려는 고 엘공동체의 노력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연염색을, 내전으로 인해서 천연염색의 맥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천연염색의 문헌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여전히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략)… 따깨오 지역에서 나는 염색, 이제, 뭐… 풀이라던지, 나무라던지 껍질, 뿌리, 열매, 이런 것들 한 200가지 되는 식물들을 저희가 같이 청년들하고 실험을 해요.

40) 천연염색으로 아이템을 정한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수출을 할 때 천연염색과 german dyeing(독일염색)만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식적으로는 화공염색의 아이템은 수출이 불가능하고 천연염색과 독일염색만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험을 하면서, 계속 문헌들을 찾고요. 전통적인 방법의 문헌들을 찾고, 또 어르신들 만나보면서, 그 분들의 기억들을 찾고...(중략)... 고엘공동체의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의 형태의 일을 시작하게 돼요.”

2. 고엘공동체의 딜레마

고엘공동체는 일반 사회적기업과 차별적인 딜레마와 비슷한 딜레마 경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특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1) 경제적 활동과(신앙)공동체형성 간의 딜레마

기독교에서 공동체형성이란 신앙공동체를 의미하고 이를 중시한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커뮤니티라는 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무리, 공동소유 등과 같은 성경구절이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생활을 초월한 공동체의식을 제시하고 있다.⁴¹⁾

한편, 아래진술문을 통해 고엘공동체가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지만 신앙공동체로서의 딜레마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전술했듯이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목회자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으로 판단된다.

“제가 이제 100% 사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공동체 스테프들에 대한 케어도 해야 하고...”

41) 전광현 외, 「기독교사회복지: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1: 254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케어(care)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규모가 커지고 또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딜레마에 서 있어요.”

고엘공동체는 경제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원래 캄보디아에 온 사명, 즉 신앙공동체에 대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는 아래 진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난 가정이 8가정이 있고, 청년들이 싱글로 와서 가정을 꾸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새로운 사역들... 일은 계속 많아지는데, 내부적인 선교와 연관된 일은 많아지는데, 비즈니스와 연관된 동업자들이 사실 없다보니까...”

“저는 리더라기보다는 현지인들이 리더십이 서 있어요. 프놈펜(사업장) 리더십이 있고 따께오 마을 작업장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서있는 리더십들이 인터내셔널 바이어(buyer)들과 상대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한편, 고엘공동체는 신앙에 대한 접근도 강제가 아닌 복음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세속적으로 보면 현지 사회적 기업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내가 (그들의 믿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만드실 것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그 삶...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그 안에 삶을 그

본으로 보여주면, 주위에서 그 삶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삶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을 때 그 때 충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입하고 강제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사실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2) 규모의 딜레마

고엘공동체는 10여 명이 시작하여 지금은 40-5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짐으로 수적성장은 되었으나 그 안에서 '얼마나 단단하지'와 같은 내부구속성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은 이것을 키우는 게 나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더 단단하게 해서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지금 서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일반 사회적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딜레마)이 존재한다. 예컨대 사회서비스 제공형일 경우, 매출을 늘리는 것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겪는다고 한다.⁴²⁾

또한 고엘공동체가 성장할수록 외부자원(재정투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현지인들에게 고엘공동체를 이양하려는 부분과 상충되는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통해 고엘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고엘공동체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

42) 오단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제공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갈등경험 연구: 한국 사회적기업의 1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0호, 2013: 175-176.

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현지인들한테 고엘공동체를 이양하려는 계획도 규모가 너무 커져버려서 out of ability가 되었다고 한다.

“100% 현지인들에 의한 자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고엘공동체)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분명히 투자가 되어져야 해요. 근데 이 투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현지인에 의한 자립이 100% 현지인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더 요원해지는 거예요.”

한편, 얼마 전까지 명품브랜드인 OO에 납품을 하었는데, 고엘공동체의 가치와 맞지 않아 납품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납품을 멈춘 이유는 납품을 하는 동안 천연염색 실이 아니므로 베 짜는 분들이 알러지(allergy)가 생겨서 구성원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납품을 하면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구성원들의 건강, 지역사회의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이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납품을 연결해 준 업체의 불합리한 유통구조(6배의 마진)가 있었다고 한다. 즉 고엘에는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주고 OO에는 높은 가격에 납품을 하였다.

이는 전문화된 사회적기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딜레마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본다면 고엘공동체의 경우,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더 균형점이 있다고 분석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난 9월까지 한국에 있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OO에 납품하는
천을 1년 정도 짜렸어요. ...(중략)...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이런 레귤러
(regular)한 천이 아니고 정말 수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걸 더 연구해야겠다.”

고엘공동체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진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진술문을 통해 앞으로 고엘공동체는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성서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공동소유는 공동으
로 비용을 사용하며 빈자에게 자선을 베풀었다(요한복음, 12:6, 13:29)며,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약속된 나라의 가치관들을 생활화하기 시작하
여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들, 심지어 경제관계까지 변화를 가져왔다.⁴³⁾

“이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삶
을... 삶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재정을 해결해 주는 수준인데, 이제 앞으로
는 조합 조성이라던지 ...(중략)... 지금은 직접적인 저희 직원들만 보험혜택
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하는 베틀 가정들 또한 조합으로 묶어
지는 베틀 가정들 또한 의료혜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 오너(owner)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성된
재정은 다 직원(staff)들이나 같이 함께 하는 베틀 가정들이나 다 돌아가게
(수익)구조가 되고 있어요.”

인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든지 많이 소유하려는 데 있다. 경제
적인 문제가 성경의 교훈과 기독교사회윤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돈과 재물의 사용방법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43) 박영호, 앞의 글, 431.

므로 기독교사회윤리와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⁴⁾

V. 나아가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은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시혜나 관용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캄보디아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 사례를 통해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확장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설립과정 및 사회적기업이 경험하는 딜레마를 분석하였다.

그간 기독교사회복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된 미션행위로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로 파악했다. 그러나 초대교회 형성기에 디아코니아의 구체적 내용, 행동에서 사회적 디아코니아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으며,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에 대한 봉사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봉사이며, 교회 집단을 초월하지는 않았다.⁴⁵⁾ 이는 디아코니아가 가지는 한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아코니아 수준을 뛰어 넘어 세계시민으로 다양한 인종, 민족 등을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환대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였다.

칸트(Kant)는 환대를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의무로 주인(주체)의 입장에서 베푸는 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용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인하여 공존을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⁴⁶⁾ 이러한 철학적 의미는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함에 우월한 존재로서의

44) 박영호, 앞의 글, 441.

45) 전광현 외, 앞의 글, 254.

46) 김애영,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39호, 2008, 177. 김성호, 앞의 글, 2016: 63.

시혜가 아닌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설립과정과 딜레마를 분석한 결과, 고엘공동체는 캄보디아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설립목적으로 가지며 사업시작은 <주인 없는 후원금>이 마중물이 되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설명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설립동기는 선교로 캄보디아에 왔지만 캄보디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함을 직면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일반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딜레마 그리고 경제활동과 선교, 즉 신앙공동체 형성 간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딜레마는 일반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딜레마 이슈와 비슷하다면 후자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일반 사회적기업과 차별되는 딜레마 경험이다.

한편, 고엘공동체는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두 가지 가치에서 경제적인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이걸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 일들을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벌써 다 흩어졌겠죠.” 이러한 진술문을 통해서도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한 것이 고엘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하게 작용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기독교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기독교 사회적기업 연구에 대한 경험적인 기반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의되고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독교 사회

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이에 비해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기독교 기반의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를 조명해 봄으로서 기독교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있어 미약하게나마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경험하는 딜레마를 통해 한국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과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에서 규모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사회적기업만은 경제논리가 아닌 삶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도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바라본다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활동이 활동지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현지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신앙공동체 형성과 경제적 활동에서의 딜레마는 기독교 사회적기업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날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신앙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실천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종교와 사회적기업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종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면 종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박영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09.
- 전광현, 김문수, 박용권, 변호순, 신민선, 손용철, 정명숙, 정형석, 『기독교사회복지: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1.
- 정선희,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고용노동부. 2007.
- Pohl, C.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2003.

• 학술논문

- 강병오,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실추 원인과 대책」.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신학과 선교』. 41집. 2012.
- 김성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31집. 2015.
- _____,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36집. 2016.
- 김애영,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39호. 2008.
- 김영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질적 연구방법의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13호. 2002.
- 김은수, 「하나님의 형상과 기독교 사회복지」.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6호. 2003.
- 오단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제공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갈등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0호. 2013.
- _____,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41호. 2013.
- 윤종권,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서적 근거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민대학교. 『한

민대학 연구논문집』. 17호. 2009.

이창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31집. 2015.

장원봉,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과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62호. 2010.

정희성, 『교회의 사회적 기업 창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Rosentraub, M.,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the rebuilding of image: The fiscal lessons from Indianapolis' unigov program".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2(2). 2010.

Dees, J. G., "The Social Enterprise Spectrum: Philanthropy to Commerce".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April: 1-7. 1996.

• 기타문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

이용현, 『세상을 섬기는 이색 기독교 사회적 기업』. 고신언론사. 『생명나무』. 391호. 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109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논문투고일: 2017년 02월 28일

심사게시일: 2017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07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확장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독교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는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신학적 근거로 디아코니아를,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캄보디아에 있는 고엘공동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문서, 그리고 심층면접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엘공동체는 레위기 25: 47, 레위기 25: 23, 룯기 4: 4을 통해 낫선 사람과 나그네를 받아들이라는 의무와 가족 중에 누군가 가난해지면, 형제들이 의무를 지는 것을 말씀삼아 캄보디아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가져 설립하였다고 한다. 사업시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불가능하였다. 사회적기업 설립동기는 선교로 왔지만 캄보디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함을 직면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딜레마 그리고 경제활동과 신앙공동체 형성(선교) 간의 딜레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부족했던 기독교 사회적기업 연구에 미약하게나마 기여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적기업, 국제개발협력, 기독교사회복지, 사회적경제
